

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

2009년 12월 셋째주

음악산업 주간동향 리포트



한국콘텐츠진흥원

What's Happening in Music Industry? [2009년 12월 셋째주]

12월 셋째주 음악산업 동향

- 저작권위원회 內 표절위원회 설치
- 구글, 안드로이드 OS 휴대폰 출시 및 관련 음악애플리케이션 확대 계획 발표
 - 애플에 이어 음악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인가?
- 계속되는 음악 사이트 간 통합, 몸집 키우기
 - 마이스페이스 뮤직, 온라인 음악 사이트 아이밐 인수

콘텐츠 목차

1. 소비자 동향

1-1. 2009년 12월 1주차 음원 판매 현황

2. 산업 동향

2-1. 프랑스에 에픽하이 등 한국 대중음악 소개

2-2. 서태지, 음악저작권협회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

2-3. 프리스타일, 유니버설뮤직 차이나 상대 저작권접권 소송

2-4. 제 3회 인디 레이블 마켓 개최

3. 기술 동향

3-1. 온라인 뮤직 비디오 사이트 VEVO 오픈

3-2. 구글 안드로이드OS 휴대폰 출시 및 관련 음악애플리케이션 확대

4. 정책 동향

4-1. 한국저작권위원회 內 표절위원회 설치

4-2.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컨퍼런스 개최

4-3. 저작권 인증제도 2010년 도입 예정

5. 해외 동향

5-1. MySpace Music, 온라인 음악 사이트 아이밐 인수

5-2. 2010년 독일 국제 음악 페어 Popkomm 개최

5-3. 美 법원, 불법 다운로드 음원에 대해 파일 파기 결정

5-4. 워너뮤직,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4/4분기 실적 호조

※ 관련 기사 및 자료 목록

1

소비자 동향

1-1. 2009년 12월 1주차 음원 판매 현황

순위	멜론(11.29-12.5)		도시락(11.30-12.6)		엠넷(11.30-12.6)	
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
1	↑25	너 때문에 - 애프터스쿨	↑10	너 때문에 - 애프터스쿨	↑6	너 때문에 - 애프터스쿨
2	↓1	Heartbeat - 2PM	↑46	처음처럼 - 티아라	↑24	Bo Peep Bo Peep - 티아라
3	↓1	Please Don't Go - CL,민지	↓2	Please Don't Go - CL,민지	↓2	Please Don't Go - CL,민지
4	↓1	You And I - 박봄	↓2	Heartbeat - 2PM	↓2	Heartbeat - 2PM
5	↓1	Sign - 브라운아이드걸스	↓1	You And I - 박봄	↑57	처음처럼 - 티아라
6	↓1	그놈 목소리 - 씨야	↓3	Sign - 브라운아이드걸스	↑4	만만하니 - 유키스
7	↑5	만만하니 - 유키스	↑46	Bo Peep Bo Peep - 티아라	↓3	You And I - 박봄
8	↓2	부른다 - 서인국	↓2	잊지 말아요 - 백지영	↓2	잊지 말아요 - 백지영
9	↑68	Bo Peep Bo Peep - 티아라	↓4	그놈 목소리 - 씨야	↓4	Sign - 브라운아이드걸스
10	↓3	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- 케이윌	↓3	만만하니 - 유키스	↓2	꿈을 꾸다 - 김태우
11	↓1	못된 여자 II - 원투	↑4	꿈을 꾸다 - 김태우	↓2	그놈 목소리 - 씨야
12	↓4	Chu~♡ - f(x)	↓4	Chu~♡ - f(x)	진입	No Love No More - 박진영
13	↓4	Ring Ding Dong - 샤이니	↓4	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- 케이윌	↑8	사랑 참... - 디셈버
14	—	마쉬멜로우 - 아이유	↓4	부른다 - 서인국	↓11	Love Like This - SS501
15	↓4	기다리다 지친다 - 2PM	↑2	마쉬멜로우 - 아이유	↑13	홀로 크리스마스 - 마이티마우스
16	↓3	헤어지지 못하는 여자,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- 리쌍	↓3	못된 여자 II - 원투	—	마쉬멜로우 - 아이유
17	↓2	Love Like This - SS501	↓5	Ring Ding Dong - 샤이니	↓6	부른다 - 서인국
18	↓2	웨딩드레스 - 태양	↓4	기다리다 지친다 - 2PM	↓5	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- 케이윌
19	↓2	눈물야 안녕 - 아이비	진입	No Love No More - 박진영	↓2	못된 여자 II - 원투
20	진입	No Love No More - 박진영	↓4	할렐루야 - 빅뱅	↓8	Ring Ding Dong - 샤이니

('09.12月 1주차 멜론, 도시락, 엠넷)

순위	벅스(11.26-12.2)		싸이월드(11.30-12.6)		소리바다(11.29-12.5)	
	전주 비 순위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순위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순위	곡명 - 아티스트
1	↑46	너 때문에 - 애프터스쿨	↑8	너 때문에 - 애프터스쿨	↑14	너 때문에 - 애프터스쿨
2	진입	처음처럼 - 티아라	↓1	Please Don't Go - CL,민지	↑106	처음처럼 - 티아라
3	↓2	Please Don't Go - CL,민지	↑3	Last Christmas - 1sagain	↓2	Please Don't Go - CL,민지
4	↓2	Heartbeat - 2PM	↓2	Heartbeat - 2PM	↑114	Bo Peep Bo Peep - 티아라
5	진입	홀로 크리스마스 - 마이티마우스	↑5	꿈을 꾸다 - 김태우	↓3	Heartbeat - 2PM
6	↓3	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 - 테이,간미연	↓3	잊지 말아요 - 백지영	↓2	You And I - 박봄
7	↑4	만만하니 - 유키스	↑1	Hot Christmas - 프리스타일	—	그놈 목소리 - 씨야
8	↓3	Sign - 브라운아이드걸스	↓4	You And I - 박봄	↓3	Sign - 브라운아이드걸스
9	↓3	You And I - 박봄	↓2	사랑 참... - 디셈버	↓6	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 - 테이,간미연
10	↓2	그놈 목소리 - 씨야	↑2	만만하니 - 유키스	↑4	만만하니 - 유키스
11	진입	Bo Peep Bo Peep - 티아라	—	마법의 성 - MC스나이퍼	↑1	못된 여자 II - 원투
12	↓5	마법의 성 - MC스나이퍼	—	돌아올순 없나요 - 디셈버	진입	No Love No More - 박진영
13	↓3	마쉬멜로우 - 아이유	진입	Bo Peep Bo Peep - 티아라	—	부른다 - 서인국
14	↓5	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- 케이윌	진입	처음처럼 - 티아라	↓6	Ring Ding Dong - 샤이니
15	↓11	웨딩드레스 - 태양	진입	No Love No More - 박진영	↓9	마법의 성 - MC스나이퍼
16	↑19	사랑 참... - 디셈버	—	술이 너보다 낫더라 - 성태,도희선	↑37	홀로 크리스마스 - 마이티마우스
17	↓5	Chu~♡ - f(x)	↓3	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 - 테이,간미연	↓8	Love Like This - SS501
18	↑50	그리운 얼굴 - 이석훈	—	TiK ToK - Ke\$ha	↓7	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- 케이윌
19	↓5	한번만 울고 말자 - 장혜진	↓1	실화 - 린	↑14	사랑 참... - 디셈버
20	↓7	부른다 - 서인국	—	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- Mariah Carey	↓4	Chu~♡ - f(x)

('09.12月 1주차 벅스, 싸이월드, 소리바다)

○ 애프터스쿨의 '너 때문에'가 전 차트 1위 등극

- 애프터스쿨의 신곡 '너 때문에'는 전주 비 엠넷 25위, 도시락 10위, 엠넷 6위, 벅스 46위, 싸이월드 8위, 소리바다 14위 상승하며 전 차트 1위 차지
- 특히 타 차트와 동시에 싸이월드에서도 1위에 올라 순위 급상승 정도와 꾸준한 인기를 감지할 수 있음
- 싸이월드의 경우 스트리밍이 반영되는 타 차트와 달리 순수 구매(다운로드에 해당) 횟수만 차트에 반영되므로 일반적으로 타 차트에 비해 1위에 오르는 속도도 빠르고 교체 시기도 짧음

- 티아라의 새 앨범은 발매된지 1주 만에 더블 타이틀 곡 'Bo Peep Bo Peep'과 '처음처럼'을 모두 차트 상위권에 올려 놓으며 쾌조의 출발
 - 티아라 새 앨범의 방송활동곡인 'Bo Peep Bo Peep'은 멜론 9위(전주비 68위 상승), 도시락 7위(전주비 46위 상승), 엠넷 2위(전주비 24위 상승), 소리바다 4위(전주비 114위 상승), 벅스 11위, 싸이월드 13위 진입
 - 더블 타이틀곡인 '처음처럼'은 도시락 2위(46위 상승), 엠넷 5위(57위 상승), 소리바다 2위(106위 상승), 벅스 2위, 싸이월드 14위 진입으로 일부 차트의 경우 방송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'Bo Peep Bo Peep'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내기도 함
- 이 외에도 박진영의 컴백 앨범 'No more, No Love' 가 멜론 20위, 도시락 19위, 엠넷 12위, 소리바다 12위로 데뷔하며 주목

2 산업 동향

2-1. 프랑스에 에픽하이 등 한국 대중음악 소개

- 남성그룹 에픽하이와 여성그룹 에프엑스,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'미데믹국제음악박람회(MIDEM) 2010'에서 쇼케이스 아티스트로 선정
 -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년 1월 '미데믹 2010'에 참가해 '인조이(Enjoy) K-POP'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 홍보관 운영 및 쇼케이스를 열어 한국 대중음악을 소개할 계획
 - 최근 에픽하이는 힙합그룹 다이내믹 듀오와 함께 프랑스 힙합 전문 방송 'TRACE TV'에서 '코리안 랩'(Korean Rap) 코너에 출연
 - 2009년 여름에 촬영된 것으로 한국 힙합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트레이스 TV 측이 한국을 직접 방문함
 - TRACE TV는 에픽하이의 녹음실을 찾아 인터뷰, 에픽하이와 MYK는 즉석에서 TRACE TV를 위한 로고송을 부름
- ※ 미데믹 국제 음악박람회 (MIDEM) : 전세계 음반 제작 및 배급사가 모이는 국제 음악 마켓으로, 2009년 행사에는 80여 개국, 4천여 업체 참가

2-2. 서태지, 음악저작권협회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

- 서울고법 민사5부, 가수 서태지(본명 정현철)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"서태지에게 5,000만원을 지급하라"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

- 재판부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고, 이용자들이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
- 과거 3년간 서태지에게 지급한 사용료와 가처분 이후 불법 사용 횟수·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을 4천만원,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산정
- 서태지는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의 음반 등을 협회가 사후 승인한 것을 시점으로 2002년 1월 저작권신탁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
- 200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이후 저작권사용료반환 청구소송을 제기
- 2008년 6월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7월 항소를 제기,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

2-3. 프리스타일, 유니버설뮤직 차이나 상대 저작권접권 소송

- 힙합뮤지션 프리스타일, 'Y <Please tell me why>'를 불법으로 중국에서 음원을 유통 시킨 혐의로 유니버설뮤직 차이나와 CP회사를 상대로 100억대 저작권접권 소송 진행
- '05.4/8일 한국 에이전트를 통하여 대만 유니버설뮤직에 소속되어 있는 대만 그룹 '에너지'에 한하여 'Y <Please tell me why>'의 리메이크 사용 승인
- 그러나 계약의 범위를 초월하여 다른 가수 판웨이보 (潘瑋柏.29)가 '不得不愛:사랑할수 밖에 없다'란 노래로 리메이크
- 판웨이보는 이 곡으로 중화권 차트를 석권하였으며 일약 중화권의 최고의 스타로 등극
- 이 과정에서 대만 유니버설은 (주)에이치뮤직의 사전 동의 없이 'Y <Please tell me why>'의 원곡 엠알(MR)에 목소리만 새로 입히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
- 유니버설 뮤직 차이나는 한국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새로 만들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
- 그러나 중국 감정 기관에서 엠알(MR)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의 'Y <Please tell me why>'의 원곡과 동일 판단
-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의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중국판권보호중심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, 12/25일 경 중국 불법 사용에 대한 저작권접권 소송의 1심 판결 예정

2-4. 제 3회 인디 레이블 마켓 개최

- 일시 및 장소 : '09.12/19~'10.2/7일, KT&G 상상마당 3층 아트마켓
- 레이블 마켓은 인디레이블 전용 음반 마켓으로 3회를 맞아 규모 확대
- 70 여개의 인디레이블과 레이블에 소속되지 않은 16개의 밴드가 참여
- 총 730여종의 음반을 전시하고 판매 계획
- 특히 홍대 지역 인디레이블 중심이었던 이전 레이블 마켓과 달리, 신촌지역과 재즈 중심의 강남쪽 인디레이블도 참여

- 모든 음악과 인디 밴드들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직접 감상/구매 가능
 - 아직 앨범으로 발매되지 않은 밴드들의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미리 청취 가능
 - 주말 저녁 시간에는 참여 밴드들의 어쿠스틱 공연과 세미나 등을 개최
 - '10.1월 말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'독립음반만세 콘서트' 무대 예정

3 기술 동향

3-1. 온라인 뮤직 비디오 사이트 VEVO 오픈

- 유니버설 뮤직 그룹(UMG)와 유튜브의 합작 뮤직 비디오 사이트인 VEVO가 지난 2009년 12월 8일 정식으로 사이트 오픈
 - 광고 기반의 뮤직 비디오 사이트 VEVO는 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인 Hulu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
 - 무료로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 영상 마다 광고를 삽입해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
- UMG와 합작한 VEVO는 현재까지 미국 4대 메이저 음반사와 정식으로 협약 체결
 - 유니버설 뮤직 그룹(UMG)을 비롯해 2009년 2월 소니 뮤직을 시작으로 EMI등이 차례대로 서비스 제공 관련 협약에 합의
 - 맥도날드를 비롯하여 마스터카드, 닛산 모터스 등의 20여개사와 광고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아이튠즈나 아마존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계획
- 하지만 지난 2009년 12월 8일, VEVO가 오픈하고 난 뒤 3가지 문제점 드러남
 - 아직 시스템 구축이 정상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이 수월하지 않으며 사용 속도도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짐
 - 현재까지 UMG, SONY, EMI 등의 3개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한 VEVO는 아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트래픽 유도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 됨
 - 또한 유튜브와 원활한 연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VEVO와 유튜브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VEVO는 시스템이 안정단계에 이르는 대로 계약된 음반사에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점차 확보할 계획
 - VEVO는 기존의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판매 유통업체에게 의존해야 하는 음원 시장과는 달리 뮤직 비디오를 자체적으로 주도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

3-2. 구글, 안드로이드OS 및 관련 음악애플리케이션 확대

- 구글, 자사의 핸드폰인 '넥서스원'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계획을 발표하며 구글의 휴대폰 사업 진출이 가시화 됨
 - 자사의 안드로이드 2.1 운영체제(OS)를 탑재해 대만의 HTC를 통해 제작한 '넥서스원'이라는 휴대폰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성능 테스트 중
 - 구글은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넥서스원을 판매할 계획이며, 전세계 이동통신 및 휴대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
 - 넥서스원은 기존 HTC의 안드로이드폰 '터치프로2'와 비슷한 형태로 두께가 상당히 얇고 성능이 업그레이드 됨
 - 관련 핸드폰 확산 및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 확산되어 애플리케이션도 증가함

- 음악관련 인기 애플리케이션인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 사업자 판도라(Pandora)도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출시
 - 매주 20만 명의 모바일 이용자를 추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 사업자 Pandora도 지난 11월 Android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음
 - 자동차 제조 브랜드인 Cadillac은 2009년말까지 Pandora의 Android 애플리케이션을 독점 후원하면서 모바일 광고를 개시했음
 - 모바일 광고 업체 AdMob의 조사결과에 따르면,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세계 Android 단말의 광고요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 가량 증가했으며, Android 플랫폼이 미국 내 AdMob 네트워크 스마트폰 트래픽의 20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
- 음악관련 안드로이드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음악스트리밍이 가능한 아이밈 모바일 (Iameem Mobile), 휴대전화용 미니 노래방으로 노래가사를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아이폰용 톱10 어플리케이션으로 뽑혔던 Tunewiki가 있으며 아이폰용보다 안드로이드용으로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했던 무료음악서비스 스포티파이(Spotify)등이 있음
 - 안드로이드 마켓이 확대됨에 따라 아이폰용과 더불어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확대될 전망

4 정책 동향

4-1. 한국저작권위원회 內 표절위원회 설치

- 한국저작권위원회, 음악 및 학술논문 등에 대한 표절위원회 발족 (12/14일)
 -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, 이경호 서울예술종합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, 남형두 연세대 법대 교수, 정진근 강원대 법대 교수 등 10명으로 표절위원회 구성
 -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대중음악이나 논문 등의 표절에 대한 의견 도출 및 연구 수행
- 저작권법 침해가 뚜렷하지 않은 표절에 대해 가부를 명확히 제시하는 심의기능을 수행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은 제시하게 될 것
 - 과거에는 공연윤리위원회가 '표절 심의제도'를 통해 '두 소절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' 제도적인 제재
 - 1996년 공연법 개정 이후 현재는 원저작권자가 민·형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해야만 인정

4-2.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컨퍼런스 개최

- 일시 및 장소 : 12/9일, 삼성동 코엑스
- 주제 : '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'
 - 저작권위원회 윤준균 팀장의 '저작권 인증제도 도입 및 추진방향'에 대한 설명과 김종원 상명대 교수 등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토론이 진행
 - 오후 행사에서는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, 오픈소스 소프트웨어(SW) 검증 및 활용 시스템 소개 등 발표
-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계부처의 활동
 - 문화부는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 56조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
 - 저작권보호센터의 합법적 저작물 유통으로 인증을 받은 '클린사이트' 사업을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진행 중
 - 문화부는 국가가 직접 저작물을 인증해주는 '저작권 인증제도'를 통해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
4-3. 저작권 인증제도 2010년 도입 예정

- 저작권위원회, '저작권 인증제도' 2010년 중 도입 계획 발표
 - 기존 저작권 등록제도와 달리 정당한 저작권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국가가 확인해주는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은 세계 최초
 - 문화부는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저작권위원회는 실무 지원 업무
 -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 자격 요건은 시행령

- 국가가 공통화된 표준화 마크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향후 외국과의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
 - 발급되는 인증서의 효력을 1~2년으로 한정해 놓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양도할 때는 인증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지침에 제시할 예정
- 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법적 근거 보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
- 인증기관 지정 취소 절차나 문화부-저작권위원회-인증기관 간 역할분담 정의
 - 저작권 인증 절차, 허위 인증일 경우 분쟁 처리 방안, 인증기관 취소 절차 등 규정
 - 인증서 부정 발급, 권리인증 마크의 부정사용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논의 필요
 - 권리자 확인 절차 및 인증 수수료 규정이 제도 운영의 핵심이 될 것

5 해외 동향

5-1. MySpace Music, 온라인 음악 사이트 아이밐 인수

-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아이밐이 음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MySpace Music에 통합
 -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인 아이밐은 MySpace에 100만 달러에 인수
 - 2003년 설립된 아이밐은 2007년부터 광고 기반 무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광고 수입이 줄어들며 경영악화와 대규모 부채에 시달려옴
 - 아이밐 인수를 통해 MySpace는 1,600만명에 이르는 아이밐 이용자와 관련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확보
- 구글과 Lala의 파트너십에 이어 또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협약 체결
 - 검색 사이트 구글은 최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인 Lala와 음악 검색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십 협약 체결
 - MySpace는 2009년 8월 iLike를 2,000만 달러에 인수 한 뒤 페이스북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1월부터 아이밐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
- MySpace는 아이밐을 인수함으로써 음악 포털 사이트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됨
 - 뉴스코프에 인수된 후 뮤지션 간 소통할 수 있는 SNS 사이트의 형태에서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는 MySpace는 아이밐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 확보 가능
 - 또한 음악 라이선싱 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원 및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메이저 및 인디 아티스트들의 정보와 콘서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역을 확장 중에 있음

5-2. 2010년 독일 국제 음악 페어 Popkomm 개최 (2010.9/8일, 베를린)

- 2009년 취소된 독일의 국제적인 음악 페어 Popkomm이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 까지 3일간 베를린 공항에서 열릴 계획
 - 베를린 음악 산업 협회(BVMI)가 막판 협상 끝에 행사 개최 확정
- Popkomm은 베를린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 기간 비즈니스 거래(B2B)를 비롯하여 다양한 크고 작은 포럼을 준비 할 계획
 - 이로써 Popkomm은 단순히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열광적인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페스티벌과 음악 페어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기획
 - 또한 2010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베를린 음악 주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쇼케이스와 전시 등을 준비할 계획
- Popkomm은 단순히 독일 음악 산업 시장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일 것으로 기대

5-3. 美 법원, 불법 다운로드 음원에 대해 파일 파기 결정

- 미국 보스턴 연방지법, 불법 다운로드 건으로 기소된 조엘 테넨바움에게 지금까지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원 파기 명령
 - '09.7월 보스턴 연방배심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원 30곡을 온라인으로 배포한 혐의로 테넨바움에게 음반사 4곳에 67만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 (저작권 위반 1건당 2만2천500달러)
 - 미 연방법에 따르면 레코드 회사는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와 배포 1건당 750~3만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당 최대 15만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
 - '09.6월 미네소타 연방배심은 24곡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제이미 토머스 라셋(32)이라는 여성에게 건당 8만달러, 총 19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음
- 테넨바움은 자신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'공정이용(fair use)'이라고 주장했으나, 법원은 기각한 바 있음
 - '공정사용'이란 시장에서 원작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, 교육이나 학업 등 공적인 목적으로 창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아닌 공정한 행위로 간주
 - 그러나 법원은 테넨바움이 친구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겠다는 목적, "다시 말해 음악인이나 저작권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바로 그 이유" 때문에 음원을 공유했으므로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

5-4. 워너뮤직,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4/4분기 실적 호조

- Warner Music, 9월까지의 4분기 매출 0.8% 상승…해외 매출 증가가 주원인
 - Warner Music이 지난 9월까지의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, 해외 매출 증가에 힘입어 4분기 매출이 0.8% 상승한 8억 6,100만 달러를 기록함
 - 환율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매출 증가폭은 4.7%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

- 미국 내 매출은 7.4% 하락한 반면, Paramore, Muse, Jay-Z, Madonna와 일본 아티스트 Laka, Kobukuro, Superfly 등의 선전에 힘입어 해외 매출이 8.8% 증가했음
 - 4분기 실적에는 지난 9월 단행한 조직 개편 비용 1,400만 달러가 반영되어 있음
 - Warner Music은 지난 9월 CD 제작 위주의 조직을 디지털 발매 중심으로 개편했음
 - 이로써 Warner Music은 4대 음반사 중 가장 빠른 매출 회복세를 보임

- Warner Music,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 피력
 - Warner Music CEO인 Edger Bronfman Jr는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시장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 21%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고 평가했음
 - Bronfman은 Warner의 디지털 부문 매출이 10.2% 증가한 1억 8,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21%를 차지했다고 밝혔음
 - 또한 현재 Warner의 현금 보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긴 시간 논란이 되어 왔던 EMI와의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음
 - Warner Music측은 다음 회계연도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, 크리스마스 라인업에 큰 희망을 보였음
 - 인기 영화 Twilight 시리즈 'New Moon'의 사운드 트랙을 포함한 크리스마스 라인업이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

별첨 관련 기사 및 자료**1-1. 2009년 12월 1주차 음원 판매 현황**

엠넷 www.mnet.com

멜론 www.melon.com

도시락 www.dosrak.com

벅스 www.bugs.co.kr

싸이월드 www.cyworld.com

소리바다 www.soribada.com

2-1. 프랑스에 에픽하이 등 한국 음악 소개

파이미디어, 09/12/09, 에픽하이·다듀, 佛 방송 출연 '화제'...힙합 문화 소개

뉴스엔, 09/12/07, 에픽하이-에프엑스, 한국대표로 佛 칸느 미담 간다

연합뉴스, 09/12/07, 에픽하이·에프엑스, 佛 음악박람회서 공연

2-2. 서태지, 음악저작권협회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

경제투데이, 09/12/10, 서태지, '저작권 소송' 음저협 상대로 승소

아시아경제, 09/12/10, 서태지,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일부 승소

2-3. 프리스타일, 유니버설뮤직 차이나 상대 저작권접권 소송

폴리뉴스, 09/12/10, 프리스타일, 中 가수와 100억대 소송

2-4. 제 3회 인디 레이블 마켓 개최

아시아경제, 09/12/09, 인디 활성화 위한 '레이블 마켓' 상상마당서 개최

3-1. 온라인 뮤직 비디오 사이트 VEVO 오픈

Buzz, 09/12/09, 뮤직비디오 전문 사이트 베보에 'EMI 합류'

Billboard Biz, 09/12/09, Analysis: On First Look, Vevo's Three Problems

Cnet, 09/12/09, Why Google's glad to dance to Vevo's tune

3-2. 구글 안드로이드OS 휴대폰 출시 및 관련 음악애플리케이션 확대

ZDnet, 09/12/14, 구글, 내년 휴대폰 시장 직접 진출

HTCmedia, 09/12/09, Android is gaining popularity with media companies

Pandora www.pandora.com/android

Adroid Market www.pandora.com/android

4-1. 한국저작권위원회 內 표절위원회 설치

연합뉴스, 09/12/13, "음악·논문 표절 막자" 표절위원회 발족
스포츠칸, 09/12/13, 표절 철폐? 표절위원회 14일 발족!

4-2.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컨퍼런스 개최

지다넷코리아, 09/12/07,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컨퍼런스 9일 개최
아이뉴스24, 09/12/07, 저작권 인증제 도입 위한 컨퍼런스 열린다

4-3. 저작권 인증제도 2010년 도입 예정

아이뉴스, 09/12/09, 저작물 권리 여부 정부가 인증한다
내일신문, 09/12/08, 저작권 불법 유통 대책 콘퍼런스

5-1. MySpace Music, 온라인 음악 사이트 아이밐 인수

Hypebot, 09/12/08, Imeem to be integrated within MySpace Music
전자신문, 09/12/09, 마이스페이스, 온라인 음악 사이트 '아이밐' 인수
All About Jazz, 09/12/10, More on MySpace Music's Imeem Purchase

5-2. 2010년 독일 국제 음악 페어 Popkomm 개최

Billboard Biz, 09/12/07, Popkomm 2010 Dates Confirmed
Hypebot, 09/12/07, Popkomm back for 2010

5-3. 美 법원, 불법 다운로드 음원에 대해 파일 파기 결정

연합뉴스, 09/12/08, 美법원, 불법음원 '전량 파기' 결정
연합뉴스, 09/08/01, 美배심, 음원 불법다운로드 83억 배상결정

5-4. 워너뮤직,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4/4분기 실적 호조

AP, 09/11/24, Warner Music posts surprise 4Q loss; shares tumble
Billboard, 09/11/24, Analysis: WMG Revenues Down, Optimism Up At Year-End

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콘(www.wecon.kr)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
과장 김도윤(TEL 02-3153-1286 , doyun.kim@kocca.kr)